

황무지 개간하듯 군산불교 일궈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재곤 스님 (군산 관음사 회주)



관음사 경내는 온통 지장세계다. 108분의 지장보살님들이 도량을 지키며 중생 구제의 원을 밝히고 있다. 무더운 여름, 재곤 스님이 시원한 물로 지장보살님들을 씻겨주고 있다.

84년부터 교도소·군포교 등에 앞장

재곤 스님은 1937년 공주 출생. 64년 선운사에서 출가했다. 은사는 남곡 스님. 66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고, 68년 동화사 강원을 졸업했다. 이후 문경 봉암사, 공주 마곡사 선원 등에서 안거를 했다. 교구본사 선운사 주지를 역임한 스님은 이후 내장사, 대흥사, 조계종 감찰부장·규정부장 등을 지냈으며, 조계종 9·10대 총회의원, 중정 사서실장 등을 맡았다. 스님은 특히 88년 전북불교총연합회장, 군산불교사암연합회장 등을 맡아 전북불교 활성화에 전력했으며, 84년부터 군산교도소 지도위원과 9군단, 35사 단 등 군포교에도 앞장서왔다.



매달 한번씩 여는 가족법회. 재곤 스님이 행복을 주제로 법문을 하고 있다.

당시 그 청년의 꿈은 교회에 있었다. 절대자에 의지하며 행복을 누리려고 싶었다. 그러나 의심이 솟아났다. 도대체 절대자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발길 닿는 대로 쫓다녔다. 우연이었을까? 순간, 머물 곳을 만났다. 1964년, 꽃 피는 고창 선운사. 청년은 그 길로 머리를 깎았다.

재곤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군산 나운동 관음사. 열 집 건너 한 집이 교회다. 인구 밀도당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 인연이 알았다. 스님은 여전히 입산 전의 '오래된 기억'과 마주하고 있다.

포교, 수행의 다른 이름이었다. 척박한 군산 불교를 일차게 일궈야 했다. 78년, 허허벌판 한 곳에 불국 벽돌로 10평 법당을 짓고, 매주 어린 이법회와 일요법회를 열었다. '포교도 수행이다'란 믿음으로 부처님 법을 자나 깨나 알렸다.

"포교 없는 수행은 없어야. 나 혼자만 수행하면 뭐 하겠서임. 아무리 좋은 옥답이라고 해도 누군가 개척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여. 황무지를 개간하지 않은 사람은 문전옥답이 되는 황무지의 소중함을 모르지. 그저 문전옥답만 생각하는 거여. 마찬가지로, 여기 군산이 불교의 불모지임을 누구나 아는 사실이여. 그런데 '여기 군산이 원래부터 불교의 황무지이니까, 개간하지 않아도 돼' 한다면, 대한민국에 좋은 농토는 없는 거여. 처음부터 옥토는 없는 것이여."

스님이 불교 불모지 군산에 관음사를 창건

한 것은 척박한 지역에 집 하나를 짚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만약 관음사라도 생기지 않았다면, 불모지는 더 불모지가 되지 않았겠느냐며 스님은 반문한다. 30년 넘게 군산불교를 일궈온 스님, 잠시 추억에 잠긴다. 하긴 개척자로서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선원에 들어가 방석 때를 묻히고 싶은 간절한 염원도 꼭꼭 눌러두고...

불교 불모지 군산에 관음사 창건하고 포교 30년 '가족이 행복해야 세상이 평안' 10년째 가족법회 출가자는 예불 꼭 모셔야...자기 몸 움직여야 건강

스님의 생생한 포교담은 나쁜 오해를 긴장시킨다. 저런 다리를 고쳐 얹고, 기자의 귀를 사정없이 잡아당긴다.

"뚝뚝 소리가 법당 답을 넘어갈 때면, 어김없이 타종교를 믿는 동네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서야. 그러면 대응전 문 닫고 선공기만 틀고 기도를 올렸지. 그때나 지금이나 군산은 교회 천국이여. 군 말없이 조용히 포교를 했서야. 왜 그런 줄 알아임? 나 듣기 좋다고 남 듣기 싫은 짓을 해봐야 뭐하는감? 도심지에 직장인들이 잘 시간에 방해하면 뭐하겠는감? 그것은 부처님 육 먹이는 지터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늘 베푸는 마음이 불자들의 마음이 아니겠는 감?"

스님의 말이 깊게 울린다. 수행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왜 포교가 중요한지, 이해란 이름으로 타종교인에게 보이지 않는 폭력을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 곱씹게 된다. 머리로 아는 것은 늘 몸으로 한 경험만 못하다는 말이 어느 때와 다르게 다가온다.

스님의 포교관은 10년 넘게 해온 가족법회에서도 엿볼 수 있다. '세상이 아무리 조용해도, 내 가족이 불편하면 세상이 불편하다'는 말로 스님은 법문을 시작한다.

"세상이 불편하다고 해도 가족 구성원이 화목하면, 그 웃음소리로 가정도 세상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여. 나부터 행복하지 못하면서 어디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서야? 자기한테 가장 행복한 것은 자기 안에 있어. 그러니 가족 법회는 우선 가족부터 행복하자는 뜻으로 열기 시작한 것이여. 가족부터 행복하려면 그 행복은 어디에서나 넘쳐흐르

않겠어?"
내가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게 보인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 낯설게 느끼지는 까닭이 무엇일까? 스님의 답이 명쾌하다. '나의 불행으로 모든 사람의 행복을 의심하기 때문이여.'

스님은 새벽 3시 45분이면 일어나, 잠 앓았다가 법당에 올라간다. 그리고 5시까지 좌선을 한 뒤 곧바로 새벽 6시까지 예불을 올린다. 출가 이후, 단 한번도 빠뜨리지 않은 철칙이다. 새벽예불 봉행은 즐거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는 것이다.

"우리 법당에 올라가는 계단이 24개여. 가장 가까운 데 부처님이 계시지. 그런데 부처님을 밟지 않는다면, 과연 불자이겠는감.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 예불은 반드시 올리지. 그것이 출가자로서 나와 약속한 서원이여. 그렇지 않으면 출가자가 아니지."

스님의 건강비결이 궁금해진다. 쉽 없이 포교활동을 해온 스님. 칠순의 나이에도 포교열정이 조금도 식지 않은 이유를 묻자, 조금은 싱거운 대답이 돌아온다.

"단 것 없어야. 자기가 자기 몸을 움직일 때, 비로소 건강이 있는 것이여.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 건강할 수 없지. 안 그런가임." 머리가 잔뜩 뚱이 오른 듯 하다. 푹푹 찜는 게 짐푼다. 답다는 생각조차 없다. 그래서일까? 세수 70에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재곤 스님의 포교열정이 한없이 존경스럽다.

글=김철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세계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

초대형범종의 밀랍주조공법 개발 성공

- 에밀레종, 상원사종을 초월하는 초정밀 범종 제작 실현 -

聖鐘社가 지난 2004년 중구공업기술이 전래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본사 전매특허인 蠟鑄鑄造工法으로 10,000만 이상의 초대형 범종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범당종에서 인공된 성종사 작품종의 섬세한 문양과 부드러운 소리를 이제 大鐘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聖鐘社는 최고의 범종 제작을 위해 항상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종사가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 97년 신리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독자 개량하는데 성공,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원광식대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중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표면이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 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 함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도입함으로써 갈색, 구리색, 녹색, 금색 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된 강릉시민의 종 높이 3.15m, 직경 1.85m 중량 3000kg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종사 범종의 하대 문양!

聖鐘社

● 본사 :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www.soungjeongsa.co.kr / E-MAIL : sungjeongsa@hotmail.com
대표 : 범산 원 광 식(인간문화재 112호 · 대한민국 명장)

상표등록 : 614981호

수제화로 제작 滿 行 靴 靴 靴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노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망사 단화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건강 슬리퍼



- 가격 : 60,000원
- 규격 : 225-285mm
- 색상 : 회색, 흑색

최고의 선물

중은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닥 깔창은 특수 항공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을 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용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 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품을 받아보시고 구입결정 송금하세요

문의 및 주문전화:

02)927-5715, 011-9000-5715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